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첫 매각' (경기일보 2004.11.30)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첫 매각'

[경기일보 2004-11-29]

내년 4월 개장하는

고양시 일산구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차이나문화타운 부지에 대한 토지 공급 및 무상 임대계약권이 29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에 돌아갔다.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 8곳 8만 4천 700평중 토지 공급이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매각된 부지는 차이나문화타운 전체 부지 2만 1천평의 절반으로 1단계 사업분으로 차이나 스트리트 4천 176평, 임대 부지는 차이나즈 가든 6천 500평 등이다.

임대 부지는 30년 무상 임대된다.

서울차이나타운 개발은 앞으로 총 추정 사업비 7천 600억원중 외국인 직접 투자 5천만달러를 포함해 외자 1억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 건립된다.

1단계 시설은 내년 9월 착공된 후 차이나즈 스트리트는 오는 2008년 4월, 차이나즈 가든은 오는 2008년 6월~2009년 3월 단계적으로 각각 완공돼 한·중 문화교류 거점은 물론 양국 자본과 기업 등의 쌍방향 교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나즈 스트리트에는 고급형 및 일반형 중국식당과 중국 명품 및 공예품점,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며 가든에는 중국 전통정원인 삼국지원, 청화신과기원, 한중문화교류센터, 삼국지문화관 등이 들어선다.

/고양=박대준기자 pdj@kgib.co.kr
<http://www.kgib.co.kr/>